

마을의제 워크숍에서 나타난 경관키워드의 유형과 의제 구조상의 특징

김수란*, 조동범**

*전남대학교 대학원 입산·조경학과 박사수로, **전남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1. 서론

‘마을만들기’는 도시계획의 주민참여 방식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참여 디자인 방법론과 계획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고 있다(이지혜 등, 2009; 임용성 등, 2012). 특히 일상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인문·사회적,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일상적 경관의 공유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의 수단으로서(김수란, 조동범, 2006) 주민참여 ‘마을만들기’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행정동 단위 주민참여 마을의제 워크숍을 통해 작성한 마을계획의 의제에서 주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은 어떠한 특징과 구조를 보이는지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범위

본 연구는 2021년을 기준으로 광주광역시 총 96개동(계획수립 없는 3개동 제외)이 전체 1회 이상 수립을 완료한 시점으로, 각 행정동별 가장 최근 마을계획 수립 현황(의제)을 대상으로 하였다. 9개 동은 2016년~19년, 84개 동은 2020년~21년 자료로, 시기상 차이가 있지만, 계획수립에 참여한 주민과 주민공동체 등은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아 수립내용에 영향은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계획으로 수립된 의제의 수는 전체 589개이며, 이 중 연구범위로 설정한 의제는 마을경관 관련 대상으로 총 370개로 전체의 62.8%에 해당이 된다.

2.2 주민참여 마을의제 워크숍의 방법과 과정

마을의제 워크숍에 참여한 대상자는 해당 동의 <마을계획 추진단>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된 주민 그룹 또는 주민자치조직, 동아리 등에 속해 있는 회원, 마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구성된 그룹이다.

의제설정 워크숍(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 2019)은 우선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을 사진촬영, 인터뷰를 통해 수집하고, 정리하여 공유하여 현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분야별 의제도출을 위한 아이디어 토론을 진행 후 의견을 합의하여 주민총의에 상정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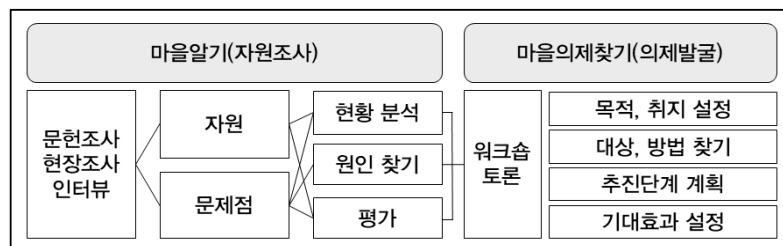


Figure 1. 마을의제 워크숍의 진행과정과 내용

워크숍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방법은 Figure 2와 같이 열린 질문을 통해 포스트잇, 종이에 메모를 하여 개인별 의견과 아이디어를 쓰고 발언하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과 의견을 정리하는 스토리보딩(storyboarding), 주제별 의제를 설정하는 5W1H(6하 원칙), 자원 평가 및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멀티보팅(multi-voting)과 같은 퍼실리테이션 기법(문영준, 2014)을 활용하였다.

2.3 연구과정

본 연구는 주민참여 워크숍, 마을계획, 도시(마을)경관의 연구현황 및 기법에 대해 분석하고, 언어기반 분석기법을 활용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연구 데이터는 행정동별 인구 수, 면적 등의 현황과 계획년도별로 의제를 정리 후, 수립 횟수가 1회 이상인 행정동의 경우 가장 최근의 계획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정리된 데이터는 형태소를 추출하여 키워드별로 자료를 분류하고, 빈도분석(김성근 등, 2016)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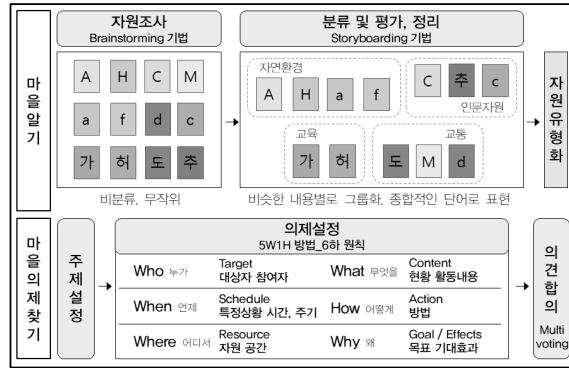


Figure 2.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의제도출 과정

3. 연구결과

3.1 마을의제에서 나타난 키워드의 분류

연구범위로 설정한 370개의 의제는 전체 1,549개의 형태소로 추출되었다. 각 형태소는 물적 요소, 비물적 요소, 경계로 대분류하고, 다시 물적 요소는 자연적, 인공적, 복합적 요소로, 비물적 요소는 사회적, 인문적, 행위적, 현상적, 심리적 요소로, 경계는 공간적 요소로 세분화하였다. 분류 후 각 키워드는 마을의제 설정을 위한 '대상', '주체', '활동·방법', '평가·방향', '공간적 범위'로 범주화하였다. '물적요소'와 '비물적요소-인문적요소'는 명칭이 세분화되어 키워드를 유형화하여 통칭하는 명칭으로 명명하였다. Table 1에 분류기준과 범주를 나누어 각 키워드의 빈도가 높은 순으로 작성하였다.

Table 1. 분류된 키워드 유형과 유형별 빈도

분류기준		범주	키워드(괄호 안은 빈도수)
물적 요소 ^a	자연적 요소	대상	산(8) 하천(3) 수목(2)
	인공적 요소		길(65) 공공시설(28) 생활환경(21) 근린생활시설(19) 공유공간(17) 인문환경(6) 종교시설(4)
	복합적 요소		공원(26) 저수지(3) 연못(1)
비물적 요소	사회적 요소	주체	주민(24) 어린이(13) 우리(8) 나(4) 청소년(4) 보행자(4) 모두(3) 스스로(3) 이웃(1) 남녀노소(1) 세대(1) 중장년층(1) 형아(1) 주민자치회(1) 산수시장 상인회(1) 석곡마을지킴이(1) 공동체(1) 산배시민(1인 가구)(1) 주거 취약계층(1) 부모(1) 차량(1) 유모차(1) 휠체어(1) 도시재생사업(1) 소규모재생사업(1)
	인문적 요소 ^a	활동·방법	마을공동체활동(51) 환경정화(20) 마을자치(8) 마을이미지(3) 마을문화(1)
	행위적 요소	방법	만들다(74) 조성하다(56) 설치하다(36) 운영하다(18) 정비하다(15) 가꾸다(11) 개선하다(18) 공유하다(8) 없다(7) 활용하다(6) 실천하다(6) 확보하다(5) 지키다(5) 견다(5) 도입하다(4) 실시하다(4) 정화하다(4)
	현상적 요소	평가·방향	안전한(35) 깨끗한(22) 빛나는(11) 쾌적한(8) 꽃 피는(4) 노후화된(4) 없는(4) 건강한(3) 특색 있는(3) 낙후된(2) 흐르는(2) 올바른(2) 부족한(1) 어두운(1) 놀 수 있는(1) 늘 푸른(1) 새로운(1)
심리적 요소	방향	견고 싶은(12) 아름다운(9) 행복한(5) 찾고 싶은(3) 즐거운(3) 웃음 가득한(3) 가고 싶은(1) 머무르고 싶은(1) 놀 수 있는(1) 발돋움하는(1) 소통하는(1) 편안한(1) 예쁜(1) 그리운(1) 정다운(1) 활기찬(1) 적극적인(1) 진정한다(1)	
경계	공간적 요소	범위	행정동명(49, 상세명칭 생략) 마을(32) 동네(7) 아파트(4) 참판골(4) 해오름마을(3) 구룡마을(2) 머굴마을(2) 소원마을(2) 산정빛어울채아파트(1) 운남마실아파트(1) 상전마을(1) 새터마을(1) 일곡마을(1) 학마을(1) 간뫼골(1) 매화골(1) 와우골(1) 운천골(1) 안심마을(1) 온마을(1) 달빛마을(1) 사과마을(1) 활짝마을(1) 화사마을(1) 화삼골(1) 관내(1) 광산(1) 자연(1) 농촌마을(1) 학교(1) 화정1동2지구(1) 공원(1)

^a : 키워드 유형 구분

마을의제 설정 워크숍을 통해 정리된 마을의 자원과 문제점은 키워드를 정확한 명칭으로 대부분 작성하였다. 하지만 계획을 위한 실천방법과 방향에 대한 범주는 의제에 따라 작성하지 않거나 1개의 키워드만으로 작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마을의제 설정에서 나타난 키워드 간의 관계

마을의제에서 주민은 마을계획의 실행을 하는 주체자로서 본인을 포함한 타인 전체, 다양한 연령대, 특정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어떤 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마을계획의 공간적 범위와도 연관되어 개인의 관계뿐 아니라 마을의 거주민 전체를 잠재적인 참여자(대상자)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일부 경관키워드는 특정한 주체를 나타내는 키워드를 연관 지어 마을의제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경관키워드와 주체키워드의 관계

경관키워드		주체키워드	경관키워드		주체키워드
대분류	소분류		대분류	소분류	
길	통학로, 등굣길	어린이, 우리아이, 부모, 아이들	공공 공간	(복합)문화센터	세대, 청소년, 주민
	골목길	우리, 주민		커뮤니티 공간(센터)	청소년, 주민

3.3 마을의제에서 부각된 경관키워드

마을의제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범위를 지칭하는 키워드에서 주민들은 개인의 생활반경보다 넓은 행정동 단위로 마을계획의 범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을에 대한 명칭을 옛 지명이나 새롭게 만들어진(마을브랜드) 명칭으로 표현하고, 이와 관련한 공간을 조성하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마을의제를 통해 마을의 이미지를 실체화하여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의제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거나, 마을에서 중요한 경관적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곳이 자주 언급되었다. ‘길’, ‘공원’과 같은 공공공간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적은 인원이라도 쉬운 방법으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있다고 인식하여 경관대상으로서 친근감을 가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간적 범위를 넘어 ‘군왕봉’과 같은 자연환경은 시각·인지적 대상으로서 주민의 접근은 어렵지만, 마을의 상징적 의미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4 경관키워드와 마을의제 설정 방식

주민이 인식하고 있는 경관 대상과 범위는 집 앞에서부터 자연환경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나타났다. 반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과 방향은 포괄적인 표현에 그치고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나 대상의 특성 등이 반영된 종합적인 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방법상의 키워드에 포함된 포괄적인 관점에서는 조성에 중점을 두며 이용, 관리의 관점도 함께 나타났다.

Table 3. 경관키워드의 의제설정 구조

경관키워드	관점	방법키워드(괄호 안은 빈도수)
5.18 기념공원, 도시공원, 마을공원, 산정공원, 소규모 도시농업공원, 양산호수공원, 역사문화공원, 영산강 생태공원, 와우골 공원, 월곡공원, 작은 공원, 장미덩쿨 소공원, 중앙공원, 테마공원, 푸른길 공원, 비둘기 공원, 공원, 동계공원, 상록공원	조성	조성(3) 만들기(3) 설치(1) 재정비(1) 추진(1)
	이용	즐거자(1) 돌자(1) 발견(1) 걷자(1)
	관리	정화(1) 가꾸자(1) 개선(1)

4. 결론

행정동 단위로 주민들이 마을의제 워크숍을 통해 마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마을계획이라고 한다면(서울시복지재단, 2015), 마을자원 조사를 바탕으로 워크숍 퍼실리테이션 기법에 따라 활동내용, 방법 등이 목표와 키워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을 것이다. 광주광역시 96개동에서 설정한 370개의 마을의제 속에서 경관키워드를 ‘대상’, ‘주체’, ‘활동·방법’, ‘평가·방향’, ‘공간적 범위’로 범주화한 결과, 마을의제 선정에서 주민은 마을 계획 실행의 주체자로서 나타났으며, 경관키워드에서는 공간의 범위와 개별 공간의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마을의제 설정에서 나타난 경관키워드는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반면, ‘활동·방법’, ‘평가·방향’은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계획상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마을의제 워크숍에서 아이디어 도출과정을 참여자와 공유하면서 계획상의 구체화를 위한 심층적 기법 적용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1. 김성근, 조혁준, 강주영(2016) 학술연구에서의 텍스트 마이닝 활용 현황 및 주요분석기법. 한국기술아키텍처연구 13(2): 317-329.
2. 김수란, 조동범(2006) 마을 만들기에 있어 주민에 의해 표현되는 풍경 공유성-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조경학회지 34(2): 57-71.
3. 김용성, 김순호, 이명훈(2012) 협의형 도시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마을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7(3): 91-104.
4. 문영준(2014)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 발전계획수립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서울시복지재단(2015) 달달한 마을상상 다이어리.
6. (사)광주광역시도시재생공동체센터(2019) 마을계획과 실천 따라하기_마을계획실천 매뉴얼북.
7. 이지혜, 이명훈, 전병혜(2009) 마을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참여도에 관한 영향구조 분석: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을 대상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44(1): 73-85.